

2015년 신년사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새해 벽두에 주변을 보면 온통 우울한 뉴스입니다. 신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조정 되고 있고, 청년 실업은 여전히 높고, 정치적으로도 갈등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을미년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우울한 해입니다. 일본제국은 조선침략에 대한 최고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명성황후를 암살했는데, 120년 전 구한말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였듯이 지금의 한국 기독교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의 죄판을 엮는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김재환 감독의 <퀵바디스>는 물욕에 빠져 대기업이 되어버린 대형교회와 비리를 저지른 목회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된 교회의 양적 팽창, 교회세습, 불륜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목회자 등을 오늘날 기독교 추락의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안락한 삶과 자녀를 희생시켜가면서 대를 이어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목사들이 함께 비난을 받는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다큐 영화 <제자 옥한흠>은 존경받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목자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참 목자가 많이 나오고, 그들의 인품이 교인들에게 흘러넘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기독교로 회복되기 위해 한국에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울림이 많습니다.

지난 25년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내부에서 교회문제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지는 의견도 많았지만, 교회에 관련된 운동은 “교회개혁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합” 등에 맡기고, 본지는 직접적으로 교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기독교세계관의 확산’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기독교의 추락을 막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새해 본지의 기본 방향을 “한국교회에 들어온 비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며 이러한 세계관이 어떻게 교회에 침투하여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하였는가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또한 이 칼럼들을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

이를 위해 새해에는 교회에 들어온 성공제일주의, 물질주의, 상업주의, 영적 실용주의, 신비주의, 반지성주의, 성직주의와 사제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높임으로써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의 원천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많은 문제점들이 대형교회 문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의회의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은 “처음에 교회는 교제모임이었고, 그리스에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박득훈 목사는 첨가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형화를 추구하다가 세습, 부동산 매입, 권력집중 등 온갖 문제가 유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학의 빈곤에서 유래된다고 봅니다. 구원파적 복음의 왜곡, 율법주의, 상급신학의 강조, 미신적 영성, 미신적 선교, 상업적 성령운동, 예수 없는 성령운동, 세대주의적 종말론, 우중화 목회, 선한 도구로서의 이성과 지성에 대한 오해, 영광의 신학, 신사도운동, 엔터테인먼트로 전략한 예배, 독재적 교회 정치 등이 모든 병폐들은 신학의 빈곤으로 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본지는 2015년 한 해의 편집 방향을 세상에서 교회로 눈을 돌려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기독교세계관을 가려내고, 건전한 신학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의 초석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많이 읽혔고, 빈부격차 문제를 다룬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정의와 빈부격차 해소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계에서는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혁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을 받기까지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 또는 사단이라고 비난을 받으며 교회에서 쫓겨나와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거꾸로 읽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이름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었지만, 이제는 ‘새로운’이라는 이름의 교회에 성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타파하는 일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필진으로 동참해 주시고, 널리 보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